

대림동, 재한 외국인 법률 지원의 최전선에서



▲ 최필재변호사

4월의 어느 오후, 한국 서울 지하철 대림역 8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서 최필재 변호사와 김용화변호사 등 임직원들을 만났다. 이곳은 지역내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과 조력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 로펌이다.

인터뷰는 단순한 사무소 소개를 넘어 지역사회내 다문화 공동체에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들의 실무 경험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림동이라는 공간이 지닌 사회문화적 특성과 법률 수요의 연결점을 어떻게 고민해왔는지를 듣는 것은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최필재변호사는 현재 한국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주 및 비자 전문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2005년 서울 강남구에서 '법률사무소 재유'를 개소하며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그는 2008년에는 법률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법무법인 재유'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기반을 구축했다.

2014년에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를 설립하였으며 재한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 및 사건수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왔다. 현재까지 11년 이상 대림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이주민 커뮤니티와의 현장 밀착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 **지역사회 법률 수요에 주목한 대림동 분사무소 개소 이야기**
최필재변호사가 대림동에 분사무

소를 개설한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대림동은 재한 중국 조선족들이 가장 밀집해있는 지역중 하나로 이주민들이 겪는 법률적 문제는 단순히 법률지식의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한국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 법률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최필재변호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장 가까이에서 직접 소통하고 일상적인 법률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림동에 분사무소를 마련했다.

그는 대림동 분사무소가 단순한 법률상담 창구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법률문제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길 바란다 고 말한다. 지금도 분사무소는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사전 상담을 통해 제도적 절차를 안내받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 **재한 중국 조선족 사회와의 실질적 연결고리, 언어기반 전문인력 배치**
대림분사무소는 법률서비스 제공 시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인력 구성을 일찍부터 고민해왔다. 현재 사무소에는 중국 사법시험에 합격한 중국 국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한 전문 통번역 자격을 갖추고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은 편이다.

중국인 직원들은 한국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마쳤으며 박사과정 재학중인 인력도 포함되어있어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모두 안정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대만 류학 경험이 있는 한국인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중화권 문화 및 언어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바탕으로 민감한 법률상담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인력 구성은 단순한 언어 지원을 넘어 법률적 이해와 문화적 소통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상담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내담자들은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 설명과 함께 한국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를 받음으로써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다.

■ **이주민 법률 지원 현장에서 마주한 구조적 어려움**

법률사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온 과제중 하나는 '신뢰'이다. 초기에 사무소를 찾는 이들 중 상당수는 변호사에 대해 기본적인 의구심을 가진 상태였다. 자신의 상황을 리해받을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은 언어·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필재변호사는 의사소통 이전에 신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사건의 맥락과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일회성 상담을 넘어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정보 제공을 통



▲ 인터뷰를 받고 있는 재유 대림분사무소 임직원들

해 '신뢰 기반의 실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현장에서 체득해온 것이다.

특히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이 안심하고 법률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법률적 판단 과정을 성실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는 앞으로도 성실한 설명과 책임있는 조력을 통해 의뢰인과 커뮤니티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 **실제 사례로 본 이주민 법률문제 의 복잡성**

재한 중국 조선족 관련 사건중에서도 인상 깊은 사례로는 변호사비 명목으로 급전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사건이다. 중국에 거주중이던 A 씨는 한국에서 사촌동생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히 지인 B 씨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B 씨는 A 씨에게 약 2,000만원 (한

화, 이하 동일)을 '변호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했고 A 씨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금액을 송금하게 된다.

이후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약 500만원, 합의금은 200만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금액의 용처는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용 내역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반환 판결을 내렸다.

소송 이후에도 자발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졌고 약 1,290만원 상당의 피해 금액이 회수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채권 반환을 넘어 한국내 체류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이 법적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최필재변호사는 “해외에서 발생한

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률상 금지된 행위이다.

광고 규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내세워 법률상담을 제공하거나 변호사 사건을 알선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사건 처리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상담을 받을 경우, 상담자의 이름과 자격 여부, 소속 법률사무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 **사건 너머 진심이 닿는 순간들**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이다. 특히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이 처음에는 막막하고 불안한 심리를 안고 사무실을 찾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사를 건넬 때, 그 한마디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법률지원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든다고 한다.

이처럼 법률서비스는 단지 분쟁 해결이나 법률 절차의 대리 그 이상이며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법이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다.

외국인 의뢰인의 경우, 낯선 제도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는 것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위해 법률용어를 가장 리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다. 최필재변호사는 “한 사건의 해결 그 자체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신뢰와 리해를 만들어가는 일이 더 오래 남는다.”고 덧붙였다.

■ **'이주·비자 전문변호사'의 활동 범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주 및 비자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들은 특정 국적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 분야의 전문 등록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 체류중인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주,

체류, 귀화, 비자 발급 및 갱신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은 실무 경험과 전문성에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리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상담 능력 역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최근 대림동 분사무소에는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가 가능한 김용화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김용화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학전문 석사과정을 이수했으며 현재 다국적 고객과의 상담에서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대상 법률 지원이 특정 커뮤니티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가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실무 현장에서는 앞으로도 한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안내와 실질적 상담이 균형있게 제공되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기억되고 싶은 법조인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길**

인터뷰의 말미에서 최필재변호사는 자신이 어떤 법조인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는 화려한 타이틀이나 결과보다 어려움 속에서 먼저 떠오르는 이름, 끝까지 곁에 있는 존재로 남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한다.

법률서비스는 단순히 법률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겪는 언어, 문화, 제도적 장벽의 복합성을 리해하려 노력해왔다. 그는 “적어도 법률적인 부분 만큼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필재변호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더 많은 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이 제도 안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그는 향후 한국내 주요 거점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상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전문가를 넘어 제도 밖에 있던 사람들을 연결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다리가 되고 싶다는 그의 다짐에서 법률가로서의 진정성과 사명감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법 앞에서 언어와 국적이 장벽이 되어서는 안돼



▲ 김용화변호사

김용화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이수한 후 현재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서 외국인 대상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종시

절부터 독일어를 전공하고 대학에서는 이탈리아어와 국제정치학을 함께 전공한 그는 외국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언어권과의 소통 능력을 키워왔다. 김용화변호사는 법률공부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주민과 외국인의 권익보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언어적, 제도적 장벽에 대해 공감하게 되면서 이들이 겪는 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진로를 정했다.

그는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대림동에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방향성과 취지에 공감하게 되면서 이들이 겪는 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진로를 정했다.

그는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대림동에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방향성과 취지에 공감하게 되면서 이들이 겪는 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진로를 정했다.

보람을 느꼈던 순간에 대해 그는 2년전 담당했던 한 류학생의 형사사건을 떠올렸다. 당시 해당 사건은 잘못하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학생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민사사건에서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한국 법률뿐만 아니라 중국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복합적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실무상 어려움 속에서도 보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조력을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화변호사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국적과 언어에 관계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공정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언어 역량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리해를 바탕으로 낯선 제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의뢰인들이 보다 명확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에 힘하고 있다.

단순한 법률적 설명을 넘어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 기반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방향이다. 김변호사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언어와 국적이 그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현장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

법률현장의 숨은 힘, 직원들이 바라본 로펌의 가치

최정인은 중국 대만의 청화대학교에서 류학을 마친 뒤 현재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한국인 직원으로 통번역 및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류학시절 쌓은 중국어 능력과 문화 리해는 재한 중국 조선족들과의 상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한국 변호사들과 중국어 사용자 사이의 언어적·문화적 간극을 줄이는 다리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외국인의 언어와 제도에 대한 리해 부족을 단순한 '번역 문제'로 보지 않고 법률 접근성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방향성은 최정인 실무자에게도 큰 공감과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는 통역이 단지 언어 전달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읽고 진심을 전하는 일로 여겨집니다. 그런 철학을 함께 나누며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사회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상담받고 보다 편안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리현은 현재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중국인 직원으로서 한국 변호사들의 법률사무를 보조하며 주로 중한간의 통번역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중국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현재 한국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정치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중한 랑국



▲ 왼쪽으로부터 한국인 직원 최정인과 중국인 직원들인 리현과 광심의

의 제도와 용어를 깊이 리해하고 있다.

그는 중한 전문 통번역 자격을 바탕으로 한국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법률 용어와 절차를 통번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문화와 제도의 차이를 설명해주고 낯선 법률 환경 속에서 의뢰인이 안심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일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또한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이곳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외국인 의뢰인들이 사회 안에서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법률기반의 연결자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도 계속해서 진정성을 갖춘 조력자가 되기 위해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심의는 현재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중국인 직원으로서 한국 변호사의 법률업무 관련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4년



중국 법률직업자격시험(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한국 한양대학교에서 정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법률과 정치, 두개 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리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중한 전문 번역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상담 과정에서 법률 용어나 제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일을 맡고 있다. 광심의는 “많은 의뢰인들이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해 법률문제를 더 어렵게 느낀다.”며 그런 분들이 상담 중에도 편안함과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실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국어, 특히 법률용어의 세밀한 의미 차이를 리해하는 과정이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외국인 통번역 조력자로서의 실력을 하나씩 다져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 의뢰인이 제도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의 법률 조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곳은 언어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직원으로 성장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본면 취재: 《결림신문》 해외판